

혼돈의 새정치…두갈래 ‘마이웨이’



安, 광주서 “혁신전대 이뤄지면 천정배 신당과 통합” “문·안·박 국민 마음 못얻어…문대표 답 빨리 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일 아당의 뒷발질 호남에서의 인적 쇄신을 의미하는 ‘호남 물갈이론’과 관련, “왜 호남만 물갈이돼야 하나”면서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지역)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째 광주를 방문중인 안 전 대표는 이날 지역 방송 프로그램인 ‘모닝와이드’에 출연, “수도권을 포함, 모든 곳에서 공정하고 투명히 평가해서 민심이 이 사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게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전날 “혁신위의 혁신 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안을 토대로 한 인적쇄신을

강조한 데 대해 ‘전국 물갈이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혁신위 안에 따라 진행되는 ‘현역 의원 20% 교체’ 방침에 대해서도 “공천혁신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천혁신 과정과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만 참여자(대상자) 동의를 얻을 수 있고 국민 보기에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합류를 권고한 데 대해선 “제가 이미 1단계 혁신전대, 2단계 천 의원을 포함한 외부 분들과의 통합을 제안했다”며 “첫 단계만 제대로 수행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면 2단계

통합은 자연적으로 대의에 따라 함께 힘을 합치시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문안박 연대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수용하더라도) 이미 국민 마음을 움직이기는 늦었다”며 “문 대표 단독체제로 총선을 못지른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혁신전대 아니면 다른 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 주내로는 결론을 내는 게 좋다”며 문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안 전 대표는 “반드시 이걸(혁신전대)을 해내야만 내년 총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가) 과분한 사람을 준 데 대해 항상 빛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제대로 된 당 혁신을 통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정권교체까지 나아가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文 “김상곤 혁신안 총력” 공동선대위 수습책 준비 “단결 아닌 대결 선택…혁신 진정성 인정 못받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의 반발 등에 개의치 않고 우선 ‘김상곤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을 실행에 옮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표는 1일 당내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간담회에서 안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과 관련, “당의 단결을 통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것인데, (안 전 대표가)단결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전날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혁신

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 전 대표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표가 이날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문종지·에어캡 등을 새로 붙이는 등 겨울철 난방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것도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압하고 있다.

이 같은 주류 진영의 기류를 반영하듯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현역 의원 지역 실사를 끝내고 여론조사, 대면평가를 담당할 기관 선정에 나서는 등 이달 내에 평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문 대표 측은 이달 내에 총선거획단을 발족하고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출범을 서두를 계획이다.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비례대표 추천 심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이번 주말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안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문 대표가 한 발 물러선다면 혁신안 고수를 원칙으로 공동선대위 구성 정도의 수습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당내 비주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비주류 진영의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는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 다음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결단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가 끝까지 당내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면 사퇴 서명을 받는 등 강력한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

지역 정치 신인들도 “야권 쇄신”

광주·전남 광역의원 등 혁신 성명 “세대교체 시작하자”

야권 분열에 실망한 광주·전남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가 반향을 얻으려는 관심이 쏠린다.

광주·전남 광역의원, 총선출마 입지자, 교수, 변호사 등 13명은 야권 혁신촉구 모임인 ‘정치혁신 한걸음 더’를 결성했다.

‘정치혁신 한걸음 더’는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치 혁신, 호남정치 쇄신을 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안·박 연대이든, 혁신 전당대회든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신당논의도 야권 위기극복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참가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 야권 혁신의 ‘불쏘시개’로서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뚜렷한 대안을 낼수 없는 한계에도 갈등 조정능력을 상실한 기성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임은 지역과 진영을 뛰어넘는 세대·세력교체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모임엔 김민중·김보현·임택·조오섭·광주시의회 의원, 강성위·문행주·우승희·전남도의회 의원, 강용주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교장,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 이상갑 변호사, 정진욱 광주정치 경제아카데미 원장 11명이 참여했다.

깊어지는 내홍…해법도 제각각

주승용 “임시 전대”, 민집모 “文 결단을”, 중진들 “선대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내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제시된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당 혼란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들은 1일 긴급회의를 갖고 ‘혁신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주 최고위원은 혁신 전대가 아니라라도 계파별 대표가 전대 후보로 출마하는 임시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를 제외하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각각 3~4명의 후보를 출마시킨 뒤 전국 순회경선 없이 한 번에 지도부를 뽑는 ‘원샷 전당대회’를 개최해 1위가 당 대표를, 나머지는 최고위원을 나눠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 최고위

원은 “갈등이 증폭되는 분열의 전대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주 최고위원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일부 최고위원이 동조했지만 전대를 실시하지 않고 문 대표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이 위기에 처하게 된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은 혁신과 통합의 과제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문 대표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표가 결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문안박’ 연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만 끌면서 문제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당의 위기를 수습할 방안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문화상·원혜영·박병석 의원 등 일부 중진은 전날 문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대책위나 선대위 등 새 지도체제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이 중 ‘문안’이 모두 참여하는 선대위 구성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의원 9명의 회동에서도 조기 선대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급 인사 8명의 모임인 ‘통합행동’은 ‘문안’이 참여하는 ‘세대혁신 비상기구’ 설치를 통해 문안의 협력을 꾀하면서 전대 가능성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삼석 전 무안군수 출판기념회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삶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책 ‘소금처럼-정지도 세상 살이도’ 출판기념회를 오는 5일 오후 2시 무안승달회관 대강당에

서 연다.

서 전 군수는 소금이 갖고 있는 치유와 부패 방지 기능을 정치에, 그리고 세상살이에 널리 퍼뜨리겠다는 의지를 책에 담았다. ‘소금처럼’은 제1부 사람과 정치, 제2부 행복사회, 제3부 지역의 미래 등 3부로 구성됐다.

무안 현경 출신인 서 전 군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1995년 전남도위원으로 선출직 정치의 길에 들어섰으며, 3선 무안군수를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MG여성만세예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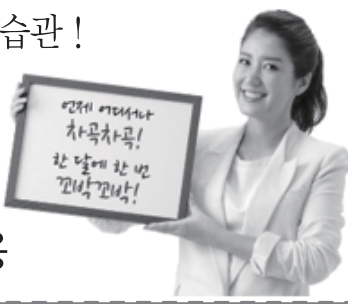
알뜰한 당신에게
“MG여성만세예금”을
추천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여성들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
(단,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면제 됩니다.)



“MG new 정기적금”

예금을 크게 키우는 똑똑한 금융 습관 !
가입조건에 따라,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 1년 최대 2.6% 이율 적용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